

사회

# ‘우기기’ 민원 쇄도... 대화 안되는 사회

### “잘못된 도로포장 공사로 다쳤다” 치료비 과다 요구 “여긴 내 땅” 이웃집 대문앞 철책 설치해 법정 분쟁

# 광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민원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부풀려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부상까지 병원을 내놓으라는 ‘막무가내’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광주지방법원 354호 소법정에서는 이웃사촌끼리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40대 남자가 자신의 땅이라며 이웃집 문 앞에 철책을 둘렀기 때문이다. 출입이 불가능해진 60대 남자는 법원에 처리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300만원에 그 조치를 강제배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화’ 없이 내용증명만 보내며 시간이 지났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대화 안 되는’ 사회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적 대가나 금전적 보상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아예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돈을 뜯어내려는 비양심도 수두룩하다.

A건설은 지난 2월 광주 서구지역에서 하수도공사를 실시했다. 공사 구간에는 수만 세대 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경우, 하수도와 인접한 건물에는 담장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시공사들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보수해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아예 재시공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주택의 주인이 보수 대신 주택 매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나마 주택의 시세는 5000만원에 불과한 데,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높다.



장난감 된 승용차

16일 오후 4시경 순천시 도사동 대룡사거리에서 김모(35)씨가 운전하던 1t 화물트럭과 오모(여·63)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오씨의 남편 김모(70)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승부조작 연루 이경환 전 프로축구 선수 자살 “구리 싸게 판다” 인터넷 사기 수천만원 챙겨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영구제명 조치를 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 이경환(2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승부조작 파문에 연루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종관(32)씨와 윤기원(26)씨에 이어 세번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프로축구 K리그 수원 블루윙즈에서 미드필드로 활약했던 이씨가 지난 14일 오후 2시25분경 인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신고했다.

지난 2009년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씨는 두 시즌 동안 42경기를 소화하는 등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지난해에는 수원 블루윙즈로

이적했지만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 영구박탈과 직무자격 영구상실 조치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5월30일에는 전 전북 출신 미드필더 정종관씨가 서울 한 호텔에서 승부조작의 가담한 사실과 함께 용서를 구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달 6일에는 전 인천 골키퍼 출신 윤기원씨가 서울 근교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전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 등 전현직 선수와 브로커 65명이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 47명이 축구계에서 영구제명됐다. /연합뉴스

### 동부경찰, 20대 둘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16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구리(銅) 등을 싸게 판매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22)씨 등 20대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일부터 3월8일 사이 광주지역 모텔 등지를 돌며 인터넷 중고품거래사이트에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48명으로부터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철과 휴대전화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글

을 올린 다음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성격의 대금 일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철업자 홍모(53)씨는 “구리를 kg당 8500원에 판매했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아 5회에 걸쳐 모두 4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 사기글을 올려 돈을 챙긴 이씨와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과 함께 공모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민형배 구청장 선거법위반 수사

### 광주지검, 광산구청 압수수색

### 니주·화순 배기운 당선지도

검찰이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수사관 6명을 광주 광산구청에 보내 총무과 열린민원실과 공보관실 홍보팀 등 2곳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홍보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광산 선거관리위원회가 번개모임 등을 통해 모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 구청장은 지난달 서구에 사는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번개모임을 가졌으며, 구청 소식지 발행을 통해 현역의원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니주·화순선거구 배기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판사님, 가장 무거운 범죄는?”

### 인화학교 출신 학생들 광주고법 찾아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출신 학생들이 16일 오후 광주고법법원을 찾았다.

이진성 광주고법법원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명록에서 학생들은 교사, 용역사, 안내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을 둘러보고 판사들에게 재판 절차를 꼼꼼히 질문했다.

경찰의 2005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재수사와 그로 인해 최근 가해자들에게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서 법과 법원에 대한 이들 학생들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미 폐교된 인화학교 출신 학생 18명과 교사 14명 32명은 광주지방법원 403호 형사법정을 찾아 이 고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 학생은 수화로 “판사님은 법 조항을 모두 기억하고 재판을 하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법관은 “자주 쓰는 조문은 기억하지만 많은 부분은 법전을 참고한다”고 답변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쌓여있는 사건기록 서류를 보고 “이걸 언제 다 읽나”, “가장 무거운 범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일(범죄자 처벌)을 하다 보면 보람은 언제 느끼나” 등 질문 보따리를 풀었다.

한편 이 고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인화학교 폐교조치로 전학한 학생들이 다니는 광주 선우정각 학교를 찾아 강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트럭충돌 중국인 등 2명 숨져

16일 오후 1시30분께 진도군 임회면 광전리 마을 앞 도로에서 홍모(50)씨가 운전하던 2.5t 화물트럭과 강모(50)씨의 1t 트럭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트럭에 타고 있던 홍씨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1t 트럭 운전자 강씨도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인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 부모 재산싸고 혈투법민 40대 형제

상남팔 ○~부모의 재산을 놓고 다투던 40대 형제가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1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씨(45)와 남동생(42)은 지난 14일 새벽 5시55분께 광주시 주월동 한 아파트 앞에서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치고받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피를 나는 형제가 서로 돕기는 못할망정 상속분쟁으로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오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한마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 인까사, 광주대리점 까사도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홍스페이스 hong79.com  
☎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상상카드 6개월 무이자 판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